

장년층을 위한 취업 특강

구직자를 위한 취업 특강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노트 내용

- 안녕하세요? 취업특강 강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위한 취업특강 강의를 진행하게 된 000입니다.
요즘 구직 활동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던가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요즘 장년층이 취업이 쉽지 않은데...'하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 네. 장년층의 취업이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저는 상담(강의)를 통해 많은 50대 이상의 구직자 분들을 만나 봤었고,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은 분명 계셨다는 사실을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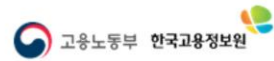


오늘 생각 해 볼 내용

1 노동시장의 현황?

2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할 수 있을까?



← 노트 내용

- 오늘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취업을 준비하시려거든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요즘 노동시장은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취업전략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정적이고 오래 일하는
일자리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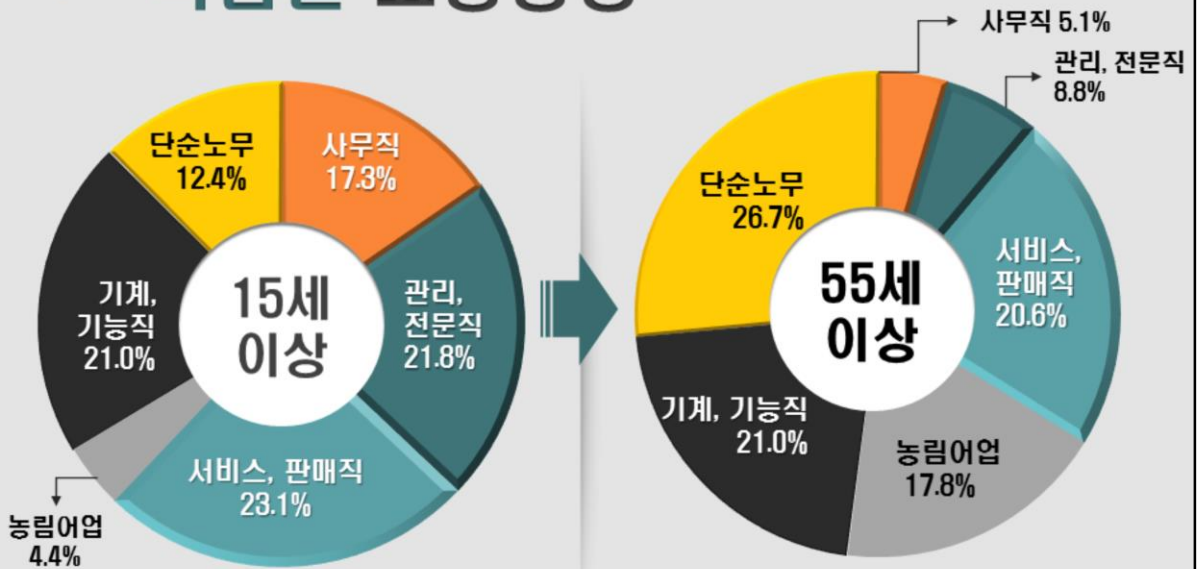
2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망직종 추천 좀 해주세요**



노트 내용

- [도입부](*상기 페이지는 생략 가능함. 강사 각자의 재량으로 자신 만의 도입부 활용.)
앞서 말씀 드렸듯 저는 그 동안 상담(강의)를 통해 많은 장년층 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다 보니 이제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질문 만으로도 구직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가 감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저에게 “안정적이고 오래 일하는 일자리 찾아주세요.” 하고 말씀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저에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망직종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 주십니다.
- 선생님들의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저는 장년층 노동시장을 전혀 모르고 구직방법을 몰라요.”라고 들립니다
- 안정적이고 오래 일하는 일자리! 저한테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 유망직종에 대해서도 정보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상담사도 나에게 맞게 추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리는 결국 내가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중장년층의 노동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깊은 고민 없이 구직활동에 임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보면 ‘아... 이 분은 취업까지 6개월 이상은 걸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혹시 하고 싶은 분 없으셨나요?
그렇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는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전략을 세우시면 되니까요.

✓ 직업별 고용동향



출처: 통계청(2014), 직업별 고용동향

노트 내용

- 그럼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종에 따른 2014년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 2014년 통계자료 이긴 하지만 현재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15세 이상과 55세 이상의 직업 비율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 15세 이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직업 비율 설명)
- 55세 이상의 직업 비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중장년층 귀농귀촌 관심 많음=>농림어업 비율의 증가. 사무직, 관리전문직 직업비율이 줄고, 단순, 노무직 직업비율이 늘었음에 대한 설명)

55세~64세 취업자 비중 상위 10개 직종

항목명	전체	남성	여성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76.4	74.5	78.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50.4	21.3	56.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7.8	37.8	40.4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36.5	38.1	13.8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35.3	36.7	32.6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34.9	34.4	45.3
법률 및 행정 전문직	34.7	37.2	2.0
이미용·예시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33.6	43.4	32.2
전문서비스 관리직	33.3	33.1	33.8

출처 : 통계청(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1 눈높이를 낮추자!
- 2 나만의 일을 찾아내자!



노트 내용

- (클릭)55세 이상의 취업 직종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보시는 표는 2014년 55세~64세 취업자 비중 상위 10개 직종에 대한 자료입니다.
(1~3순위 정도 살펴보기)
- 여기까지 보고나니 어떠신지요. 이것이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제가 그 동안 만나 보았던 중장년 분들의 구직 준비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클릭)첫 번째로는 눈높이를 낮춰야 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령, 단순 노무직 진입도 마다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클릭)두 번째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거나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ex. 협동조합, 1인 기업)
- 선생님들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다음 각각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보람 있는 일! 마음먹기 나름!



학교경비원 A씨
도로환경미화 업무도 즐겁게!

출처: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ticleId=0010528624&code=61121111&cd=rv>

창직! 나를 브랜드화 하라!



맥아더스쿨 교장 정은상씨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_c&sid1=101&oid=421&aid=0000818216

노트 내용

- 두 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경비, 미화직 종사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프로정신을 가지고 보람 있게 근무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 학교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A 선생님은 봄이 되자 떨어지는 벚꽃 앞이 야속했습니다.
- 쓸어도 쓸어도 다음날 또 떨어져 있는 것이 벚꽃잎이었기 때문이죠. 허나 A선생님은 평소 손글씨를 잘 쓰시는 강점을 발휘하여 벚꽃잎을 쓸어 도보 위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글귀를 새기자, 이것이 매체에 소개 되었고, 결국 A 선생님은 학교 측에 상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비직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느냐에 따라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클릭)(클릭)
- 정은상 선생님(61세)은 2010년 스마트폰에 관련 사용법을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뭐 하시려고요?’라고 말하는 아들의 핀잔으로 시작된 공부였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정은상 선생님은 맥아더스쿨을 만들게 됩니다. 소셜 비즈니스 멘토링 강사라는 본인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중장년층에게 스마트기기 활용법에 대한 코칭 및 강의를 하게 된거죠.
- 한계가 있는 노동시장에서,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면, 창직의 길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은상씨 관련기사_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5116>)

나에 대해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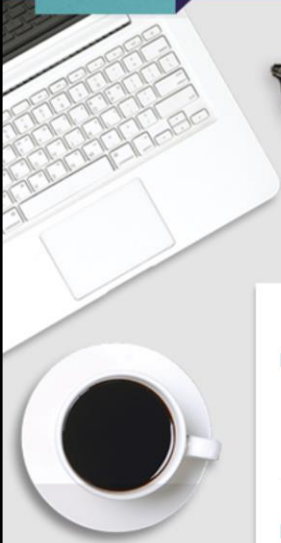


출처: 사무직베이비부머 퇴직실계프로그램, 한국고용정보원



노트 내용

-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바로 떠오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 쪽의 선택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시리라 봅니다.
- 아는 만큼 보이고 선택하게 되는 법이지요.
- (클릭)(클릭)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에 대해 정확한 이해입니다.
- 크게 3가지 틀로 나에 대해 찬찬히 정리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전문성으로 그동안 내가 직무를 통해 축적해온 나의 전문지식, 기술, 노하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흥미로 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나 주제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재능인데, 내가 느끼는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겁니다.
- 생각보다 각각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십시오.
 한 동안 공인중개 자격 취득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 남성 분들은 시설관리 관련 자격 취득을 하고자 하시죠.
 본인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격을 취득하여도, 공인중개, 시설관리 관련 일들이 본인과 맞지 않아 그만 두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 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그럼 다음으로 알아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에 대해 공부하기

-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직업진로>직업, 학과동영상>취업지원동영상]

노트 내용

- 앞서 나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클릭)(클릭) 자기 이해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중장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시면 직업에 대해 공부 하셔야만 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로 가시면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정보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인생 2막 두번째 직업',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적합한 도전 직종 30개'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각 자료PDF 파일을 준비. 파일을 함께 살펴보면서 수강생들이 관심을 갖는 몇 가지 직업 예시로 본다면 효과적일 것.)
- 또한 워크넷 사이트에도 중장년층 선호직업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이트 띄운 후 안내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 그럼 이제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고용센터 및 공공기관 활용하기
- ☑ 이력서, 면접 제대로 준비하기
- ☑ 인맥활용 및 개척하기

노트 내용

- 구직활동도 혼자서 준비하게 되시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 (클릭)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기 위해 고용센터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 성실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일자리 정보 탐색에서 면접까지 다양한 구직스킬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명)
-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는 공공기관으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www.4060job.or.kr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서비스 가입을 하시면 1:1 컨설턴트가 매칭이 되어 구직활동에 대한 상담도 받고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또한 워크넷을 통해 장년층 취업정보도 꾸준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장년 사이트 정보검색 직접 시연 해보기)
- 이력서, 면접 준비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기존의 인맥을 활용하고 새로운 인맥의 개척을 통한 구직활동도 중요한 전략인데요.
-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각의 구직스킬의 핵심을 알려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제대로 준비하기

**이력서 사진,
인적 사항**

경력사항

**경력 상 강점/
성향 상 강점**

추가 정보

노트 내용

- (*강사 별 개인상담 사례 제시_이력서 통한 취업성공케이스)
ex. 경비직에 지원하는 60대 초반에 B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자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 깔끔한 이미지 메이킹도 시급했지만, 뼈뿔한 글씨로 휘갈겨쓴 이력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이력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B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인사담당자가 이력서를 보고는 따로 본인을 불러 바로 면접을 보았으며, 최종 합격하게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 취업율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인 이력서 샘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클릭)
- 이력서 구성을 살펴보면, (클릭)인적사항, (클릭)경력사항, (클릭)경력 및 성향 상 강점, (클릭)자격사항, 특기사항 등 추가 정보 순으로 작성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 이력서 작성내용

인적사항

주민번호 아닌 생년월일만 써도 무방. 연락처, 이메일 주의

사진

깔끔한 복장의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지양

경력사항

자신이 경험한 경력사항을 사실대로 기재

노트 내용

• (클릭)[인적사항]

- 예전의 이력서 양식 기억 하시나요? 소위 문방구식 이력서라고 하는 양식에는 주민번호를 다 쓰게끔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번호를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생년월일 정도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락처나 이메일을 잘 못 작성해서 엉뚱한 분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클릭)[사진]

- 첫 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5초 이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죠.
-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사진이 중요합니다. 깔끔한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은 사진의 사용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 (클릭)[경력사항]

- 경력사항에는 그 동안 쌓아온 경력을 역순으로 기재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본인의 여러 경력 중 특정 경력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 경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디서 일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였는가'입니다. 경력사항 내에 작성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뒤에서 정리 할 경력상의 강점에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력서 작성내용

경력/성향상 강점

차별화된 경력상 또는 성향상의 강점을 기술

자격사항

각종 자격증, 면허증 발급 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



노트 내용

• (클릭)[경력/성향상 강점]

- 기존의 문방구식 이력서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 된 면모를 보이기 위함인데요. 나만의 경력 상 또는 성향 상의 강점을 기술함으로써 면접의 기회를 잡고 면접 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령 청소직에 지원한다고 하면, 본인의 특수기술, 성실함 등을 어필하고, 조경직에 지원한다면, 자격 취득 후 총 경력 연수나 관리수목 등 에 대해 어필합니다.
- (ex. 운전직: 00운수에서 근무한 20개월 동안 접촉하고 나 대인사고가 전혀 없었음)

• (클릭)[자격사항]

- 각종 자격증, 면허증에 대해 작성할 때는 자격증, 면허증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자격증 수여 기관명과 취득연도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 취득한 자격증을 모두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 외 학력사항의 경우는 최종 졸업 학력만 쓰시면 됩니다.

✓ 이력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신이 가진 기술 및 능력을 최대한 기재할 것
 -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상세히 기술할 것
 - 최대한 압축할 것
-
- 깔끔하게 작성할 것(서식의 일관성)
 - 한가지 이력서로 여러 곳에 지원하지 말 것
 -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할 것
-
-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번호를 남길 것
 - 오타나 오기가 없도록 할 것
 - 이메일 지원 시 보내는 사람 이름 확인할 것

노트 내용

- 이력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앞서 경력사항과 경력상 강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 드렸듯, 자신이 가진 기술 및 능력을 최대한 기재하고,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하지만 이도 전략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령, 경비직을 지원하는데,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오히려 인사담당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지요.
- 또한 이력서는 나에 대해 3초 안에 승부가 나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문장을 길게 작성하여 호흡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이 먼저 작성될 수 있도록 순서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일관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 글자체는 맑은고딕, 굴림체, 글자크기는 11~12포인트로 작성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베낀 이력서나 한 기업에 제출했던 이력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지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력을 쓸 때는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하는데, 혹시 첫 직장에서의 경력이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 어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연대기 순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 번호를 남길 수 있도록 하며, 오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합니다.
- 완성된 이력서를 이메일로 지원할 때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별명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여 이름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ex. 이메일 별명:그레이맨 x, 이메일 사용자명: 홍길동o)

✓ 면접관이 보는 체크포인트

-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 얼마나 성실한가

노트 내용

- 그럼 지금부터는 면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클릭) 면접관이 보는 체크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면접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질문 후 답변에 대해 긍정적 지지)
- (클릭) 우선, 장년층에 대한 면접 시 인사담당자 분들이 특히나 주의해서 보는 포인트는 건강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어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입니다.
- 하지만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경력을 언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에서의 경력이라도 지금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이 없다면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중요하죠.
- 가령 나이가 나보다 어린 직원이 많아도 어울릴 수 있는지, 혹은 여성이 많은 조직인데 어울릴 수 있는지 등 조직 분위기(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 최대한 전 조직에서 동료 및 상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어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하게 쌓아오신 경력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 왔고, 결근 없이 얼마나 성실히 근무해 왔는지에 대해 나만의 경험을 잘 풀어서 어필해 보셔야 합니다.

✓ 면접 시 주의할 점

- 01 지나친 솔직함은 독이다
- 02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한다
- 03 강점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한다
- 04 복장 및 청결상태에 주의한다
- 05 미소, 미소 또 미소 짓기



노트 내용

- 면접관의 체크포인트 확인하였으니 이를 숙지 하시고, 면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클릭)[지나친 솔직함은 독이다]**
중장년층은 연륜과 경험이 있다보니 면접 시 말씀은 대부분 잘 하십니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으로 면접 시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50대 초반의 남성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 하면서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 분은 면접 시마다 전 직장 상사의 험담을 했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면접 시 인사담당자가 아무리 편안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 **(클릭)[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한다]**
질문의 요지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령 인사담당자가 취미생활로 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인사담당자는 나의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기 보다는 직장 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클릭)[강점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한다]**
이력서에 작성한 경력상의 강점을 잘 숙지하셔서 면접 시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강점 스토리를 3~5개 정도는 더 준비하여 나를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 **(클릭)[복장 및 청결상태에 주의한다]**
면접 시 복장은 정장이 정석이지만, 중장년층 분들의 면접은 정장이 아닌 캐주얼차림일 때도 있습니다. 캐주얼차림에도 되도록 무채색계열의 컬러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상의, 하의 모든 의상 컬러가 3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 착용하시는 것이 문안합니다.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몸에 냄새가 날 수 있으니 면접 당일 조심하시고, 손톱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 **(클릭)[미소, 미소 또 미소 짓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웃으십니까? 평상 시에 미소가 멋진 선생님들도 면접에만 가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막상 비디오촬영을 해보면 얼굴이 굳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면접장에 가시기 전에는 얼굴의 긴장감을 풀고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긴장감도 풀고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 자~ 그럼 지금 한 번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미소 지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미소 연습_ 잘하는 교육생 지지하기)

일자리 정보 얻기

<표 9> 구직경로 (지난 1년간 구직경험자)

(단위 : 천명, %)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2011.5	2012.5	2013.5	2014.5
구직경험자	1,058 (100.0)	978 (100.0)	1,025 (100.0)	1,055 (100.0)	1,505 (100.0)	1,560 (100.0)	1,616 (100.0)	1,633 (100.0)	1,741 (100.0)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직 업알선기관	130 (12.3)	130 (13.3)	162 (15.8)	244 (21.1)	488 (32.4)	448 (28.7)	418 (25.9)	424 (26.0)	461 (26.4)
민간직업알선기관	109 (10.3)	104 (10.6)	112 (10.9)	95 (8.2)	111 (7.4)	116 (7.4)	125 (7.7)	142 (8.7)	171 (9.8)
신문, 잡지, 인터넷 등	108 (10.2)	82 (8.4)	99 (9.7)	115 (10.0)	121 (8.0)	123 (7.9)	158 (9.8)	149 (9.1)	134 (7.7)
사업체 문의 방문	105 (9.9)	117 (12.0)	110 (10.7)	120 (10.4)	164 (10.9)	157 (10.1)	175 (10.8)	174 (10.7)	200 (11.5)
친구, 친지소개 및 부탁	507 (47.9)	471 (48.2)	484 (47.2)	518 (44.8)	523 (34.8)	610 (39.1)	675 (41.8)	681 (41.7)	704 (40.4)
기타 ¹⁾	99 (9.4)	73 (7.5)	59 (5.8)	62 (5.4)	98 (6.5)	107 (6.9)	65 (4.0)	63 (3.8)	71 (4.1)

주 : 1) 자영업 준비,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노트 내용

- 여러분은 채용정보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워크넷을 통해 채용정보를 살펴보시나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답을 중장년층들의 구직경로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직업알선기관, 민간직업알선기관, 신문/잡지/인터넷, 사업체 문의 방문, 친구/친지소개 및 부탁 등
- 자. 그럼 어떤 경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을까요? 2014년 자료를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 친지소개 및 부탁'입니다. 경력직에 대한 자리는 대개 주변인의 추천을 통해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구직 시에는 주변 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 유난히 수월하게 되었던 구직자 분이 양질의 정보는 발품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정보를 얻게 된 비율도 전체로 볼 때 높은 편입니다. 고용센터 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의 서비스를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부터라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사업체 문의 방문' 입니다.
- 대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정보는 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에 먼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정보를 얻고나 기회를 얻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소위 이를 타겟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ex. 취업이 되지 않던 50대 남성이 본인이 관심 가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타겟마케팅을 했더니 면접기회를 얻어 취업에 성공함)
-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맥활용 및 타겟마케팅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기회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 내용

-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동시장현황에 대해 말씀 드렸고, 구직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강의는 각각 따로 특강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관련 특강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무쪼록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으로 조만간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당신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